

이방실 장군의 생애와 군사활동

홍영의*

1. 들어가며
2. 이방실의 가계와 혼인관계
3. 이방실의 행적과 홍건적 격퇴 활동
4. '삼원수'의 살해와 후대의 평가
5. 나가면서

1. 들어가며

李芳實은 咸安 이씨의 시조(중시조)로 1298(충렬왕 24년)에 함안 竝谷 兜峰山 下內洞(餘航面 內谷里)에서 출생하여¹⁾ 1362년(공민왕 11) 金鏞의 僞計에 의해 홍건적의 난을 물리치고 공을 세운 삼원수인 安祐·金得培와 함께 살해되었다.

이방실은 135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홍건적의 1차 침입을 격

* 국민대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한국역사학과 교수

1) 李澤寬, 『元帥李公實記』 年數圖에는 忠宣王 원년(1298, 충렬왕 24)에 竝谷 兜峰山 舊第로 되어 있다.

퇴한 공로로 공민왕에게 玉帶와 玉纓을 下賜를 받으면서 “우리 宗社가 폐허가 되지 않게 하고, 백성이 魚肉이 되지 않게 함은 다 방실의 功이다. 내가 비록 살을 베어 주더라도 오히려 능히 보답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물건이 어찌 아까우리오”라고 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장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의 거짓 왕명을 믿어 摠兵官 鄭世雲을 죽이고 왕명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안우·김득배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誣告에 의한 이 ‘삼원수 살해 사건’은 1391년(공양왕 3) 房士良의 요청에 의해 복권이 되었지만, 이후 조선시대 사가에 의해 ‘공민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 期必하기도 어렵다’는²⁾ 평을 듣게 된다.

인물의 褒貶은 매우 어렵다. 부족한 기록은 그것대로, 풍부한 기록은 그것대로 어떤 기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 기록마저 불안정하거나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어졌다면 그 기준이 애매해진다. 특히 정치적 문제가 더해졌을 경우는 더하다. 이방실을 비롯한 안우·김득배의 공적은 흥건적의 격퇴와 관련한 사실은 비판받을 일은 없으나, ‘삼원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려말 이후 조선후기까지 그 전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방실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가계나 초기 활동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咸安李氏世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듯 싶다. 그러나 흥건적의 1, 2차 침입 격퇴 과정에서 보이는 활동은 매우 자세하다. 물론 이 내용도 정사류인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자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일까?

기록이 없어도 업적이 많거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은 후대에 계속 口傳되거나, 단편적인 자료들은 누군가에 의해 수집, 정리된다. 특히

2) 俞榮 『麗史提綱』 권20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그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고 확대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없는 기록과 불확실한 기록으로 개인의 삶을 복원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³⁾

이 글에서는 이방실과 관련한 자료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남은 기록을 통해 그의 가계와 혼인관계, 생애와 활동을 복원하고, 흥건적의 1, 2차 침입을 격퇴한 공로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삼원수’ 살해와 후대 평가를 통해 이방실에 대한 후대 인식의 변화과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그의 세계를 『咸安李氏世譜』 등을 통해 추적하고, 생애와 군사활동 부분, ‘三元帥’ 살해 사건과 후대 평가의 평가는 『고려사』·『고려사절요』와 문집자료, 그리고 『元帥李公實記』 등을 이용하여 그 대략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이방실의 가계와 혼인관계

이방실의 생애에 대해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 당대 정사류에는 그의 가계나 선대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선대의 세계가 명확치 않은 까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⁴⁾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함안군조에는 함안⁵⁾ 이씨가 趙·蔡·尹·劉·鄭氏 등

3) ‘三元帥’ 대한 연구는 姜周鎭, 1983 「恭愍王의 高麗再建運動과 三元帥」 『韓國學文獻研究의 現況과 展望』 아세아문화사 : 민현구, 2009 「高麗 恭愍王代 중엽의 정치적 변동」 『震檀學報』 107에 대략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다.

4) 『咸安李氏世譜』(1802)를 참고하면, 咸安 李氏의 시조는 일반적으로 遠祖 衛尉寺主 溥同正 李元紱로부터 시작되어 李湯就 李光柱 李龍起로 이어져 李尙으로 내려왔다고 알려져 있으나, 상계가 실전되어 상고할 수 없다고 하여 고려 고종 때 공을 세워 巴山君으로 봉해진 이상을 시조로 삼고 있다. 『乙丑譜』에는 그의 선계 등에 관한 내용은 없고, 다만 凡例편에 巴山君에 처음으로 封爵되었으므로 그를 시조로 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李尙의 아들 李清은 文下侍郎 平章事를, 李源은 版圖判書를 지냈으며, 이 두 계파를 중심으로 咸安 李氏가 번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개의 성씨가 토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때부터 재지 사족으로서의 기반이 갖추어진 가문으로 여겨진다.⁶⁾ 특히 함안의 3대 토성은 함안 이씨·조씨·윤씨로, 모두 吏族에서 성장하였다. 15세기 이후 함안 이씨와 조씨가 大姓으로 남게 되는데, 함안 이씨는 임진왜란 이후 인근 고성지역의 대표적 사족으로 크게 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이방실 이외에 선대는 기재되지 않고 있다.⁷⁾

1587년(선조 20) 鄭逵가 편찬한 『咸州誌』에 따르면,⁸⁾ 1258년(고종 45)에 과거에 장원한 李源이 그의 아버지가 된다. 여기에는 최종 관직이 版圖判書로 기재되어 있다.⁹⁾ 이원은 1258년(고종 45) 3월에 國子監試(進士試)에 太僕寺事 韓就에 의해 장원으로 뽑히고,¹⁰⁾ 1275년(충렬

5) 咸安이란 이름은 757년(경덕왕 16)에 최초로 불리워졌고, 995년(성종 14)에 咸州로 개칭된 후 金州(김해)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1018년(현종 9)에 다시 함안으로 고쳐졌다. 정구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1373년(공민왕 22)에 고을 사람 周英贊의 딸이 명나라 황제의 궁인이 되어 총애를 받음으로써 知郡事(郡守)로 승격되면서였다. 1466년(세조 12) 전국에 걸쳐 지방행정을 정리할 때 군수가 파견된 이후 1505년(연산군 11) 일시적으로 咸安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이듬해 군으로 환원되었다. 晉州牧에 소속되어 있었다.

6) 『世宗實錄』 권150 지리지 慶尙道 晉州牧 咸安郡. “土姓六 李趙蔡尹劉鄭 來姓二 崔【竹山來】 金【金州來】 續姓一 姜【本未詳 今爲鄉吏】”.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慶尙道 咸安郡조에는 “【성씨】 본군 李·趙·蔡·尹·劉·鄭, 崔 竹山. 金 金州. 姜 續姓이다.”에서 토성은 앞의 것과 같다.

7) 17세기 중반 趙從耘(1607~1683)이 편찬한 『氏族源流』에는 ‘李芳實-李文中’의 세 계만 되어 있고, 李穎-李稹-李興孫은 달리 구분하였다. 그러나 『咸安李氏世譜』에는 尙-源-芳實-芮-穎-稹 계열, 淸-弘-滋秀-云吉 계열로 세계가 정리되어 있다.

8) 『咸州誌』는 경상도 咸安의 읍지를 후에 필사한 것이다. 본서는 현전하는 私撰邑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내용의 것이다. 卷末에는 鄭逵가 1587년(선조 20)과 1589년(선조 22)에 쓴 序가 있고 壬亂 직후인 1600년(선조 33) 吳漂이 쓴 跋이 있다.

9) 1854년(철종 5) 후손 李澤寬이 편찬한 『元帥李公實記』도 『咸州誌』의 내용을 따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수이공실기』는 1854년(철종 5) 南履穆이 序를, 후손 李澤寬이 重刊跋을 썼으며, 咸安李氏宗中에서 木活字本, 3卷1冊으로 南岡祠에서 간행하였다. 남강사는 1842년(현종 8)에 후손들이 건립하여 매년 제를 지냈으나, 고종 때 훼손되어 1944년 옛 터에 복원하였다. 1998년 정부보조금으로 忠烈祠와 남강서원을 중건하여 현재까지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이방실의 謚號인 忠烈公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10) 『高麗史』 권74 지28 選舉2 科目2 凡國子試

왕 1) 直史館, 興王寺 別監과¹¹⁾ 1299년(충선왕 즉위) 충청도 按廉使를¹²⁾ 지낸 인물이다. 홍왕사 별감으로 있을 때, 齊國大長公主의 怯伶口인 車信이 홍왕사 婢의 役을 면제해 달라는 청탁을 거부하자, 구타를 당할 정도로 강직한 면을 보이고 있다. 또 이원은 副使로서 安克仁과 함께 1360년 『帝王韻紀』 後題를 쓰기도 했으나,¹³⁾ 그의 행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한편, 이방실의 장인은 辛珣이다.¹⁴⁾ 신순은 본관은 靈山으로, 공양왕의 從叔인 王環의 처남이다.¹⁵⁾ 판도판서로서 공민왕 12년 己亥擊走 紅賊功臣으로 책봉되었다.¹⁶⁾ 조부는 僉議贊成 革이고 부는 閤門祗候 原慶이며, 처는 寶馬陪行首別坐 安宗基의 딸이다.

신순의 형 辛齋는 충혜왕 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좌정언, 知申事를 역임하고 종 2품인 僉議評理 지위에 올랐다. 원의 制科에도 합격, 榆帖都監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신예는 그의 매부인 高龍普의 후원을 받았고¹⁷⁾ 고용보가 충혜왕을 압송할 때 직접 관여하였다. 충혜왕이 압송된 후 원 순제의 명으로 한동안 고려의 국사를 총관하기도 하였다. 신예는 충목왕 대에 그의 친인척과 知人을 대거 고위직에 포진시켜 권세를 떨쳐 세상 사람들이 그를 ‘辛王’이라 부를 정도로,¹⁸⁾ 충혜

11) 『高麗史』 권123 열전36 張舜龍·車信

12) 『高麗史』 권33 忠宣王 즉위년 2월 甲戌

13) 『帝王韻記』 後題 “先生業文精博 洞明古今 官以右司諫·知制誥 便歸老關東 雖迹同去國 而志在匡君 遂於看藏餘 修此帝王韻紀 以供乙覽 其辭約 其旨暢 如珠之在貫 網之在綱 萬代相承 理亂終始 不出乎此 可謂通鑑之粹歟 但所惜者 於本朝 仁宗紀 只言見逼 不言其終復天位 永貽孫謨 是一缺耳 胡不添撥亂賴忠臣 龍孫綿不已之一句 而足之乎 先生非不知 撮略故爾 臣幸以不才 獲承憂寄 比到州 彫板僅終矣 故無所補 徒以姓名 冠于板尾耳 副使 臣 李源 謹題”

14)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是日 芳實赴行在 至龍宮縣 王命芳實舅右散騎辛珣·按廉成元揆往迎”

15) 『高麗史』 권91 列傳4 宗室 神宗 王子 襄陽公 王恕 附 永興君 王環

16) 『高麗史』 권40 恭愍王 12年 11월 壬申

17) 『高麗史』 권122 列傳35 宦者 高龍普

18) 『高麗史』 권125 列傳38 姦臣 申齋

왕 때부터 원에 의지하여 권력을 천단하였다.

그러나 영산 신씨는 공민왕의 반원개혁과 함께 추진한 친원세력의 제거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형인 신예는 공민왕 4년에 먼저 죽어 奇轍과 같은 운명을 면했지만,¹⁹⁾ 아우 신귀는 蔡河中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장인인 康允成과 함께 유배되었다. 또 둘째 형인 辛富가 흥건적의 난 때 咸從 전투에서 전사하였다.²⁰⁾ 곧이어 1365년(공민왕 14) 辛晄이 집권하면서 신순과 신귀는 그의 측근으로 활동하였으나,²¹⁾ 공민왕이 신돈을 숙청할 때에 함께 伏誅되었다.²²⁾

신귀의 장인인 강윤성은 谷山 강씨로 李成桂의 장인이다. 따라서 이성계는 신귀의 손아래 동서가 된다. 당시 강윤성과 允忠·允暉 형제들이 권세를 잡자 충혜왕·공민왕 때 대표적인 권문세족으로 성장하였다.

강윤성은 충혜왕, 충목왕 대에 찬성사를 지냈고²³⁾ 공민왕 초에는 判三司事에 올랐다.²⁴⁾ 처는 진주 姜氏 姜闇의 딸이다.²⁵⁾ 장남 康得龍은 공민왕 때 삼사우사를 지냈고,²⁶⁾ 2남 康舜龍은 몽골 이름이 바얀테무르[伯顏帖木兒]로 처음 원에서 벼슬을 지냈다. 1356년(공민왕 5)에 원으로부터 高郵城의 파병을 요청받았을 때, 파견된 사신이 바로 원나라의 吏部郎中의 직위를 가진 이성계의 재종숙 노하이[那海]와 장순룡이었다.²⁷⁾ 찬성사를 역임하였고 銀城府院君에 봉해졌다.²⁸⁾

19) 『高麗史』 권38 恭愍王 4年 2월 己未

20)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21) 신돈 관련자에 대한 문제는 이정란, 2007 「辛晄 黨與 家門의 조상 감추기와 褒貶論」 『한국사학보』 27이 참고된다.

22) 『高麗史』 권132 列傳45 返逆 辛晄

23) 『高麗史』 권36 忠惠王 後4년 4월 庚申 및 권37 忠穆王 卽位年 10월 甲子

24) 『高麗史』 권125 列傳38 姦臣 蔡河中

25) 『顯宗改修實錄』 권22 현종 11년 1월 癸丑

26) 『高麗史』 권38 恭愍王 卽位年 11월 乙亥

27) 『高麗史』 권38 恭愍王 3年 6월 癸卯

28) 『高麗史』 권38 恭愍王 3年 7월 辛巳

강운성의 아우 강운충은 충혜왕의 嬖幸으로 총애를 받았고, 曹頤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일등공신에 책봉되었다.²⁹⁾ 충목왕 때 왕의 모후인 長寧公主의 신임을 받아 찬성사를 지냈으나, 德寧公主와의 추문, 간음과 정치도감 사업의 반대 등으로 탄핵과 좌천을 당하기도 했고, 공민왕 초에 판삼사사를 지냈다.³⁰⁾ 강운휘는 충정왕 원년에 판도판서를 역임하였다.³¹⁾ 강운휘의 아들인 上將軍 康祐는 이성계의 큰아버지인 雙城總管府의 쌍성만호 李子興의 딸과 혼인하여 사위로서 두 집안은 중첩혼 관계에 있었다.

곡산 강씨 가문은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반원개혁 때 가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강운성과 강운휘는 공민왕 5년 8월에 일어난 ‘채하중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고,³²⁾ 강운충은 공민왕 5년 6월에 일어난 ‘林中甫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찬성사에서 東萊縣丞으로 폄출되었다가 공민왕 8년 12월에 복주되었다.³³⁾ 공민왕의 반원개혁 과정에서 친원세력의 숙청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다.³⁴⁾ 그러나 공민왕 10년을 고비로 곡산 강씨 세력은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공민왕 12년 홍건적의 2차 침입 격퇴 후 강운휘의 장남인 康永이 護軍으로서 京城收復功臣 및 己亥擊走紅賊功臣으로 책봉되었고,³⁵⁾ 강운성의 형 康允貴의 장남인 康元甫는 경성수복공신으로 책봉되었다.³⁶⁾ 또한 1363년(공민왕 12) 홍왕사의 변이 일어나자 공민왕은 康得龍의 집을 行宮으로 삼아 두 달 가량 거처하기도 했다.³⁷⁾ 따라서 이방실은 혼인을 통해 이미 당대 권문세가이었던 영산 신씨·곡

29) 『高麗史』 권36 忠惠王 後 3年 6월 庚子朔

30) 『高麗史』 권124 列傳37 嬖幸 姜允充

31) 『高麗史』 권37 忠定王 元年 8월 乙卯

32) 『高麗史』 권125 列傳38 姦臣 蔡河中

33)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8년 12월

34) 洪榮義, 2016 「고려말 李成桂의 婚姻關係와 경제적 기반」 『韓國學論叢』 45 참조.

35) 『高麗史』 권40 恭愍王 12年 윤3월 및 11월 壬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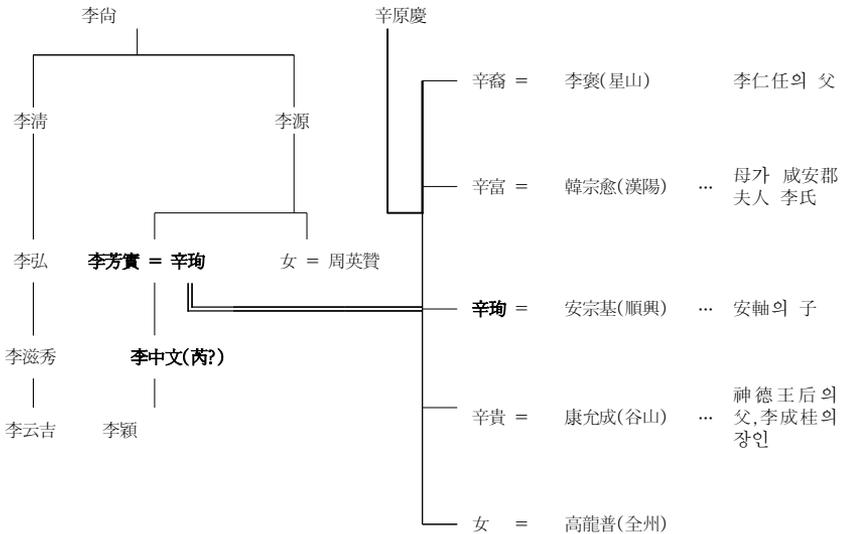
36) 『高麗史』 권40 恭愍王 12年 윤3월

37) 『高麗史』 권40 恭愍王 12年 윤3월 辛未朔

산 강씨 가문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충목왕의 入元 侍衛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방실의 아들 李中文은 이방실이 참살당할 때 『고려사』에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적도 불분명하다. ‘삼원수 살해’ 이후 수습과정에서 내린 공민왕의 교지에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처자까지는 죄를 미치지 않게 하도록’ 조치한 것을 볼 때, 가족과 친족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듯 하다.³⁸⁾ 그러나 『함안이씨세보』에는 李芮로 기재되어 있다.³⁹⁾ 아래의 표는 그의 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이방실의 가계와 혼인관계



38)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3월

39) 李中文은 『咸安李氏世譜』에 李芮로 기재되어 있다. 20세손 基煥씨가 1984년 찬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가평의 묘비에 따르면, 1351년에 출생하여 1391년에 歿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인은 三司左尹을 역임한 파평윤씨 尹受禎의 딸로 되어 있다. 아마도 安祐의 아들이 10살인 것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이에는 본관은 陽城. 자는 可成. 李漣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의 孟常이고, 아버지는 첨지중추원사 全之이다. 李存棼의 증조가 된다. 『高麗史』·『高麗史節要』를 편찬할 때 修史官을 하였고, 세종~성종대까지 활동하였다(『成宗實錄』 124권 성종 11년 12월 25일 경오).

3. 이방실의 행적과 흥건적 격퇴 활동

이방실의 행적과 관련하여 젊은 시절,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소 설화적 내용인 다음의 자료일 것이다.

“고려 元帥 李芳實은 젊었을 때에, ① 용맹하기 짝이 없었다. 일찍이 西海道에서 노닐 적에 노상에서 우연히 흰칠하고 키가 큰 사나이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나이는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말 앞에서, “숨은 어디로 가십니까. 모시고 가겠습니다.”하였는데, … ② 이방실이 화살 한 개로 두 마리를 맞혀서 잡았다. 해가 저물어 빈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 도적이 힘껏 활을 쏘자, 이방실은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아 마구간에 끼어 두었다. 이렇게 하기를 10여 차례 하니 한 통에 있던 화살이 모두 떨어졌다. ③ 도적이 그 용기에 탄복하여 빌면서 살려 달라고 하였는데, … 그 氣勢가 하늘을 뚫을 만큼 세차므로 머리칼은 모두 뽑히고 몸은 땅에 떨어졌으나, 이방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가버렸다. 지위가 높아진 晩年에 다시 그곳을 지나다가 농가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는데, 집안은 매우 큰 부자였다.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맞이하던 노인이 크게 술상을 차리더니 술이 취하자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비할 수 없이 용맹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를 해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내가 해를 당하여 하마터면 죽으려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로부터 改過하고 농업에 힘써 다시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습니다.”하고는, 모자를 벗어 보이는데, 머리가 이마처럼 번들번들하여 머리칼이 하나도 없었다.

이방실에게 ④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역시 용맹하기 짝이 없었다. 항상 작은 나뭇가지를 벽에 꽂아두고 형제가 나뭇가지 위를 올라다니는데, 이방실이 올라가면 가지가 움직였으나, 누이동생이 지나가면 움직이지 않았다. 또 하루는 ⑤ 누이동생이 파리한 使童과 파리한 말을 타고 江南으로 건너가는데,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건너려고 다투다가 누이동생을 들어 내리니, ⑥ 누이동생이 크게 노하여 배의 노를 들고 배 타려던 사람들을 난타하였는데, 굳세기가 나는 새매와 같았다.”⁴⁰⁾

40) 成俔 『慵齋叢話』 권3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방실이 젊은 시절부터 용맹스러웠다는 점 ①, 화살 한 개로 비둘기 두 마리를 맞힐 정도로 활을 잘 쏘는 명궁이였으며②, 도적의 머리 가죽을 벗기고 살려 놓아 주었더니, 개과 천선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점③, 누이동생이 하나 있었는데④, 그녀 역시 용맹스러웠다는 것이다⑥. 아울러 이방실이 말을 타고 다닌 점과 누이가 비록 파리한 使童과 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⑤ 점은 일정 정도의 家産을 축적한 가문임을 말해준다.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이방실의 청년시절의 일면을 파악 수 있다.

그러나 『고려사』 등의 기록을 통해 이방실의 행적은 대체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흥건적 1, 2차 침입을 전후로 한 시기와 또는 충목왕대와 공민왕대로 구분된다. 그러나 활동의 대부분 기록은 흥건적 침입과 격퇴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이방실의 첫 관직 기록은 『安東先生案』에 보인다. 1337년(충숙왕 복6)에 通德郎으로 福州司錄에 부임되어 2년 후인 1339년에 遞任된 것이지만,⁴¹⁾ 『고려사』에서는 충목왕이 세자로 8살에 원나라에 들어갈 때 侍從한 것과 그리고 충목왕이 즉위하자 그 공로로 中郎將(정5품)에 보임되었다가 護軍(정4품)에 제수되어 田 1 백結을 下賜받았다는 것이 첫 기록이다.⁴²⁾ 즉 충혜왕이 원 順帝의 명을 받아 중국 揭陽縣으로 귀양을 가다가 岳陽縣에서 사망하자, 1344년 원의 宦者인 고용보의 품에 안겨 황제를 알현한 충목왕이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를 배우겠느냐’는 황제의 질문에 어머니를 배우겠다는 대답을 하여 왕위 계승을 허락받았는데,⁴³⁾ 이때 원

41) 이때 李芳實의 이름은 李邦實로 『高麗史』의 것과는 다르지만, 『高麗史節要』에는 李邦實로 기재되어 있다. 권25 충목왕 4년 1월 무자. “監察劾論其罪 以其壻李滄爲允忠門客 百計營救 反陞子由爲贊成事 諫官宋天逢李邦實安元龍不署子由謝貼 允忠朦朧君命 召邦實等 勒令請暇 尋奪其職” 또한 『元帥李公實記』에는 年數圖에는 1339년(충숙왕 후 원) 侍從 入元하고, 1340년(충혜 후 원년) 福州守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安東先生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42)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에 들어가 侍衛한 것으로 보인다. 1347년(충목왕 3) 강윤충이 자신과 친한 安子由가 大廟의 일을 대행하면서 犧牲으로 사용해야 할 소를 願堂의 승려에게 주었던 일로 감찰이 그 죄를 탄핵하자, 오히려 강윤충이 안자유를 승진시켜 贊成事로 삼은 일이 있었다. 이 일로 諫官 宋天鳳·이방실·安元龍이 그의 謝罪에 서명하지 않자, 강윤충은 왕명을 빙자하여 이방실 등을 소환한 뒤 억지로 휴가를 요청하게 하고, 그들의 관직을 빼앗아 버렸다.⁴⁴⁾ 이때 이방실이 간관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민왕 즉위 후 1354년(공민왕 3)에는 大護軍(종3품)으로 전임되었다가, 宣城(瀋陽 인근에 營城과 함께 설치된 掃里로 宿驛임)에서 다루가치 魯連祥이 모반하자, 龍州(평안북도 용천군)의 병사를 이끌고 이를 진압하였다.⁴⁵⁾

이해 9월에 원의 승상 脫脫이 高郵城에 주둔한 張士誠을 토벌하기 위하여 南征軍을 조직하였다. 이때 고려는 원의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 결국 援征軍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공민왕 원년 2월에 원은 崔濡를 고려에 보내어 처음으로 원정군 모집의 뜻을 전달했으나 성사하지 못하였다. 그 후 공민왕 3년 6월에 탈탈은 사신으로 왔다가 귀국하는 蔡河中을 통해 고려에 재차 고려군 파견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어 원의 사신 哈刺那海 등이 고려에게 장사성 등의 강남 반란군 토벌을 위하여 파병을 요구하고 8월 10일까지 북경에 집결할 것을 명하자, 7월에 이방실을 비롯한 柳濯·廉悌臣 등 40여 명이⁴⁶⁾ 평양

43) 『高麗史』 권37 忠穆王 總書

44) 『高麗史』 권124 열전37 嬖幸 康允充

45)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이 기록은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1년 1월과 열전 21의 의 曹益淸의 기사를 통해 이방실이 대호군에 승진한 것은 1351년(충정왕 3)으로, 이때 선성에서 魯連祥의 謀叛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장동익 2016 「고려후기의 정치, 사회 그리고 咸安」 『함안의 인물과 학문(Ⅳ) -충렬공 이방실장군의 학문과 사상·생애-』 24~25쪽 참조).

46) 『高麗史』 권38 恭愍王 3年 6월 癸卯 “元遣吏部郎中 哈刺那海 崇文監少監 伯顏帖木兒 利用監丞 林蒙古不花 召柳濯·廉悌臣·權謙·元顯·羅英傑·印瑞·金鏞·李權·康

수군 300명을 비롯한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출전하였다.⁴⁷⁾ 이때 이방실도 참여하게 된다.

원에 들어간 고려군은 원나라의 승상 脫脫이 이끄는 원나라 군대와 함께 강남으로 이동하여 大都에 살고 있던 고려인과 함께 총 2만 3천 명으로 장사성의 본거지 고우성을 공격하였다. 이후 六舍城을 함락시켰고 또 1355년 淮安路로 이동하여 반란군을 방어하면서 八里莊에서 여러번 전투를 치렀으며, 또 四州와 和州 등의 반란군 함대 8천여 척으로 淮安城을 포위할 때 주야로 맞서기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李權, 崔源 등의 여섯 장수가 전사하기도 했다. 최영은 회안성 전투에서 두어 차례나 창에 맞는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적의 거의 전부를 살상 포로로 하는 등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⁴⁸⁾ 이들은 1355년 말에서 늦어도 1356년까지 귀환하였다.

한편, 1357년(공민왕 6) 8월, 고려 조정에서는 흥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침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둘러서 방어대책을 수립하였다. 김득배를 西北面紅頭軍倭賊防禦都指揮使로 임명하여⁴⁹⁾ 국경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安州와 서경을 중심으로 한 청천강 이남지역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흥건적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방침 아래, 安州軍民萬戶에 안우, 副萬戶에 金元鳳을 임명하고, 西京軍民萬戶에는 慶千興, 부만호에는 김득배, 偏裨(副將)에는 이방실을 임명하였다.⁵⁰⁾ 이는 원에 왕래하는 사신들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였

允忠·鄭世雲·黃裳·崔瑩·崔雲起·李芳實·安祐等及西京水軍三百且募驍勇期以八月十日集燕京討張士誠伯顏帖木兒本國人康舜龍”. 이때 원에出征한 장수는 유탁, 엄제신, 印瑒, 孫佛永, 崔雲起, 李芳實, 權謙, 車菡溫, 姜允忠, 鄭世雲, 崔瑩, 李權, 羅英傑, 金鋪, 安祐, 崔源, 印安, 崔安守, 具貞, 趙忠信, 崔祿 등 21인이 『高麗史』 列傳에서 확인되며 그 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홍영의, 1991 「恭愍王의 反元政策과 廉梯臣의 軍事活動」 『軍史』 23 및 2005 「고려말 정치사 연구」 해안, 86쪽 참조.

47) 『高麗史』 권38 恭愍王 3년 7월

48) 『高麗史』 권113 열전26 諸臣 崔瑩

49) 『高麗史』 권39 恭愍王 6년 8월 丁巳, 11월 庚申

다. 당시 원나라의 내부 사정으로 보아서 홍건적을 완전히 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그 세력이 고려에까지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후 1359년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홍건적은 고려에 침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해에 홍건적은 고려에 글을 보내 義로서 일어난 자신들에게 歸附하라고 협박하였다.⁵¹⁾ 그리고 서북면 일대에 배치된 고려군의 방어태세가 잠시 느슨해진 1359년 11월 29일, 홍건적 3천여 명이 결빙된 압록강을 이용해 고려로 건너와 북변 연안 일대를 약탈한 뒤 퇴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⁵²⁾ 이 사건은 홍건적의 내침은 바로 직후의 대규모 침입을 위한 탐색전으로 보인다.

1359년(공민왕 8) 12월 8일에 홍건적의 괴수 毛居敬·僞平章 등이 4만의 홍건적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가로질러 義州로 침입해 왔다.⁵³⁾ 의주 副使 朱永世와 군민 1천여 명은 결사적인 항전을 전개하였으나, 끝내 성이 함락되고 군민 1천명이 전사하였다. 그 이튿날에 홍건적은 의주 남쪽 25리의 靜州로 진군하였다. 도지휘사 김원봉이 지휘하는 정주 군민들도 용감히 싸웠으나, 성의 함락과 함께 전사하였다. 정주를 점령한 홍건적은 곧바로 남하하여 의주 남쪽 35리 지점의 麟州를 함락시킨 후 鐵州로 진군할 태세를 갖추었다.

홍건적이 남하를 계속하자, 고려 조정은 그 대책으로서 12월 11일에 守門下侍中 李岳을 西北面都元帥, 慶千興을 서북면 副元帥, 김득배를 서북면 都指揮使, 李春富를 西京尹, 李仁任을 서경 存撫使에 임

50)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7년 6월 癸未,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51)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52)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8년 11월, 12월

53) 홍건적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姜性文, 1986 「高麗末 紅頭賊 侵寇에 關한 研究」 『陸士論文集』 31 : 金正義, 1988 「홍건적의 침입에 관한 고찰」 『軍史』 17 : 李慶喜, 1993 「고려말 紅巾賊의 침입과 安東臨時首都의 대응」 『釜山史學』 24 : 國防軍史研究所 편, 1993 『韓民族戰爭通史 II (高麗時代篇)』

명하여 방어군의 지휘부를 편성하였다. 이때 홍건적이 철주로 침입해 왔는데, 안우·이방실 등이 격퇴하자 적들은 麟州·靜州 등지로 퇴각하였다.⁵⁴⁾

12월 16일에는 인주에 주둔하고 있던 홍건적은 철주로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하였다. 이때 안주군민만호 안우는 70여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戰地를 순찰하던 중,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적의 대병력과 맞닥뜨렸다. 안우 휘하의 고려군 장졸들은 크게 당황하였으나, 안우는 침착하게 부대를 정돈하고 淸江(선천 서북방 10리 지점) 東岸에 포진하여 西岸의 홍건적과 대치하였다.

이때 홍건적 기마병 수명이 장창을 휘두르며 청강 다리 위로 접근하자, 병마판관 丁贊이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여 단숨에 적장의 목을 베어 넘어뜨렸다. 그 기세를 틈타 안우는 이방실·李蔭·李仁祐 및 家僮 豆達 등과 함께 일제히 강을 건너 적진으로 돌입하여 적의 대열을 유린하였다. 큰 혼란에 빠진 홍건적은 마침내 청강을 도하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인주·정주 일대로 퇴각하였다.⁵⁵⁾

그 후, 홍건적 1천여 기가 남진하여 宣州를 점령하였다. 이때 안우는 김득배와 함께 보병과 기병 1천여 명을 이끌고 출동하여 홍건적을 선주에서 격퇴시켰다. 공격의 기세를 올린 안우 군대는 패주하는 홍건적의 후미를 쫓아 그들의 본대가 주둔하고 있는 인주와 정주까지 깊숙이 진격하였다. 홍건적은 전병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반격을 감행하자, 안우가 지휘하는 고려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千戶 吳仲興과 장군 이인우를 비롯하여 다수의 장병들이 전사하는 큰 손실을 입고 정주로 퇴각하였다.⁵⁶⁾ 이후로 청천강 이북지역의 고려군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으며, 홍건적은 정주 지역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하여 청천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경으로 진출하였다.

54) 『高麗史』 권39 恭愍王 8년 12월 庚午

55) 『高麗史』 권39 恭愍王 8년 12월 丁卯, 戊辰

56)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한편, 청천강 이북의 흥건적 점령 지역에서는 고려 군민들이 즐기 차게 유격전을 전개하여 흥건적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판사 金縝은 의주·정주 지역 주민과의 협력으로 의주의 흥건적 진영을 기습하여 적병 150여명을 참살하고 다량의 군량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⁵⁷⁾ 후방을 공격당한 흥건적은 공격의 기세가 꺾여 그 이남으로 남하하지 못하고, 청천강 이북지역에서 발이 묶이고 만다.

이렇게 흥건적의 남하를 저지할 동안 신속히 방어군과 지휘부를 편성한 고려 조정은 서북면 도원수 이암을 급파하였다. 흥건적 본대가 청천강을 도하할 무렵인 12월 20일에 이암이 서경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서경에는 군사들이 집결해 있지 않았다. 이암은 흥건적에 대한 반격작전으로 우선 군사들에게 전통적인 淸野戰術을 써서 서경의 창고를 불사르고 인근 요충지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⁵⁸⁾ 그러자 호부낭중 金先致(김득배의 동생)는 “만약 창고를 불태우면 적도들이 양식이 부족해 졸지에 나라 안으로 들어올 터이니 좋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반대하였다.⁵⁹⁾ 결국 이암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서경성에서 황주로 후퇴하여 이 지역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고려 방어군의 주력이 黃州로 철수하자, 12월 28일에 흥건적이 서경성을 점령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의 백성들은 저마다 남쪽으로 피난을 떠날 준비를 하는 등 민심이 건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휘

57)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정월 己亥

58)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8년 12월

59) 『高麗史』 권114 列傳27 諸臣 金先致. 흥건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고려 지휘부에서는 숙의 끝에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도원수 이암의 주장으로서, ‘서경성을 지탱할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성내에 비축된 물자를 소각하고, 서경 인근의 다른 요새를 근거로 하여 흥건적의 대동강 이남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김선치의 주장으로서, ‘서경성의 비축 물자 소각은 적의 남진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서경을 미끼로 하여 적을 서경에 묶어둔 상태에서 아군은 후방으로 물러나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암은 김선치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초토화 작전을 강행하려 했으나, 함께 있던 안우도 김선치의 의견에 찬동하였다.

말려 들어갔다.⁶⁰⁾

고려 조정은 12월 29일에 호부상서 朱思忠을 서경성내의 흥건적 진영에 보내어 그 정세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⁶¹⁾ 고려 방어군이 황주로 전선을 후퇴시킨 경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암에게 책임을 물어 도원수 직을 해임하였다. 그리고 평장사 李承慶을 신임 도원수로 임명하는 한편, 전 첨의찬성사 權適으로 하여금 僧軍을 거느리고 황주로 출동하여 관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⁶²⁾

고려군과 흥건적이 각각 황주와 서경에 진영을 설치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360년(공민왕 9) 1월 1일에 고려 조정은 知門下省事 鄭世雲을 서북면 도순찰사로 임명하고, 흥건적과의 전투에 공로가 많았던 장병들을 표창하였다.⁶³⁾

이 기간 동안에도 고려군과 흥건적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었다. 1월 15일에 判事 金璣과 宦者 金玄이 수백기의 기병을 이끌고 서경으로 이동하다가 상원과 서경 중간지점에서 3백여 명의 흥건적과 전투를 벌여 1백여 명을 참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⁶⁴⁾ 1월 16일에는 상장군 이방실이 지휘하는 부대가 황주 서쪽 30리의 鐵化에서 흥건적과 싸워 1백여 명을 참살하였다.⁶⁵⁾

1360년 1월 하순부터 고려군 측에서는 2만여 명의 방어군을 총동원하여 흥건적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고려군은 서경을 공격하기 위하여 1월 18일에 황주를 떠나 중화 서쪽 2리 지점의 生陽驛으로 진군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밀어닥친 酷寒으로 말미암아 凍死者와 낙오자가 속출하였다. 서경성의 흥건적은 고려군의 북상과 때를 같이 하여 의주·정주·서경 등지에서 포로로 한 고려의

60) 『高麗史』 권39 恭愍王 8년 12월 己卯

61) 『高麗史』 권39 恭愍王 8년 12월 戊子

62) 『高麗史』 권107 열전20 諸臣 權咀·權適

63)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1월 己丑

64)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1월 癸卯

65)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정월 癸卯, 甲辰

양민 1만여 명을 학살하여 성 밖에 유기함으로써⁶⁶⁾ 고려군의 기세를 꺾고자 하였다.

서경성 정면으로 육박한 고려군은 1월 19일에 보병을 앞세워 공격을 개시하였다. 홍건적은 고려군 공격부대와 맞서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이 공방전에서 고려군은 공격 대열이 혼란에 빠져 사상자가 1천여 명에 달하였으나, 수천명의 홍건적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이에 홍건적은 마침내 고려군의 공세에 밀려 서경성을 포기하고 龍岡·咸從 방면으로 패주하였다.⁶⁷⁾

서경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고려군측에서는 1월 27일에 안우를 안주도만호, 이방실을 상만호, 金於珍을 부만호로 임명하는 등 공격군을 재편성하였다.⁶⁸⁾ 안우의 군대가 2월 2일에 함중으로 진군하였으나, 홍건적의 기습공격에 패주하였다. 홍건적은 정예기병을 동원하여 추격을 계속하였으나, 안우·이방실·김어진과 대장군 李珣 등 여러 장수들이 후미에서 적의 추격을 차단하였다. 이때 마침 동북면 천호 丁臣桂가 1천명의 병력을 이끌고 나타나 추격군을 가로막고 수십명을 참살하자, 홍건적은 추격을 멈추고 함중의 본진으로 퇴각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보병 1천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손실을 입었다.⁶⁹⁾

한편, 肅州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홍건적 4백여 명은 2월 4일에 서경으로 진출한 홍건적이 패주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자, 서둘러서 의주로 북상하였다. 압록강을 도하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러자 의주에서 성문 수축 공사를 하고 있던 중랑장 柳塘과 낭장 金景이 龍州 등지의 군사를 지휘하여 이들을 공격하였다. 이에 홍건적이 의주를 점거하지 못하고 정주성으로 들어가자, 유당은 끝까지

66)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1월 丙午

67)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정월 丁未

68)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1월 乙卯

69)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2월 己未

지 그 뒤를 추격하여 이들을 모조리 섬멸하였다.⁷⁰⁾

고려군은 함중에서 2월 15일에 또다시 홍건적과 전투를 벌였다. 이 때 동원된 고려군의 총병력은 2만명, 홍건적의 총병력은 3만명이었다.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이 전투에서 판개성부사 辛富와 장군 李堅을 비롯한 다수의 장병들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성을 점령하여 홍건적 2만여 명을 참살하고, 그 괴수로서 원수를 자칭하고 있는 黃志善을 생포하였다.⁷¹⁾

안우·이방실 등이 지휘하는 고려군이 함중전투에서 거둔 이 승리는 제1차 홍건적 토벌전쟁에 있어서 최대의 전과를 올린 전투였다. 홍건적은 함중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한 이후 겨우 1만여 명이 생존하여 甑山 방면으로 패퇴하였다.⁷²⁾

고려군은 함중 전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안우와 이방실을 1천여 기의 기병부대를 거느리고 홍건적을 계속 축출하여 청천강 이북의 延州 방면으로 격퇴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김득배와 김어진 휘하의 기병부대도 이곳에 이르러 안우·이방실의 부대와 합류하여 홍건적에 대한 대규모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고려군 대부대의 추격으로 위기에 처한 홍건적은 延州江 연안으로 몰려들었다. 이때가 동절기였기 때문에 연주강은 얼어붙어 있었으나, 대병력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곳곳에서 얼음이 깨져 수천명의 홍건적이 익사하였다.⁷³⁾ 홍건적의 잔여병력을 가까스로 연주강 서안에 상륙하여 서둘러 전열을 정비하고 고려군의 추격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은 여기에서 일단 추격을 중지하고 대열을 수습하면서 차후의 추격 준비에 들어갔다. 궁지에 몰린 홍건적이 결사적으로 저항할 경우에는 고려군측에 적지 않은 손실이 생길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이

70)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2월 辛酉

71)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2월 壬申

72)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2월 壬申

73)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2월 癸酉

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⁷⁴⁾ 이에 홍건적은 고려군이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야음을 틈타 태주-귀주-선주를 연하는 경로를 따라 철주 방면으로 북상하였다.

홍건적의 이동상황을 감지한 고려군 측에서는 이방실의 부대를 선두에 내세워 재차 추격전을 개시하였다. 고려군이 패주하는 홍건적의 뒤를 따라 추격전을 전개하는 동안, 안주에서 철주에 이르는 경로상에는 홍건적의 시체가 즐비하게 널려있었다. 이방실은 옛 선주 땅에 이르러 날쌔 기병으로 그들을 쫓아 수백 명을 죽이자 적이 죽기로 싸웠다. 패주하는 홍건적을 결사적으로 대전하였으므로 고려군도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려군은 추격을 중지하고 잠시 부대를 휴식시키면서 전열을 정비한 뒤에 추격을 재개하였다.⁷⁵⁾ 가까스로 살아남은 홍건적 패잔병 3백여 명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압록강을 향하여 강행군을 거듭하여 의주를 거쳐 압록강 서안으로 도주해 버렸다.⁷⁶⁾

이렇게 고려군이 육상 전투에서 홍건적을 완전히 격퇴시킨 이후에도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4월 초순까지 홍건적의 도발이 계속되었다. 3월 22일에 홍건적의 전선 70척이 豊州의 碧達浦와 西京의 德島·席島로 들어와 정박한 후 鳳州 등지로 진출하여 살육과 약탈을 감행하였다. 이어서 홍건적의 전선 1백여 척이 安岳 동쪽 40리 지점의 元堂浦에 침입하여 양식과 재물을 약탈하고, 살인과 방화를 자행하였다. 현지의 고려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가까스로 이들의 침입을 저지하였으나, 30여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었다.⁷⁷⁾ 원당포에서 퇴각한 홍건적은 3월 27일에 선단을 2대로 나누어 황주 서쪽 20리의 琵琶浦와 청천강 하구의 城垣浦로 진출하였다.⁷⁸⁾ 4월 1일에 홍건적의

74)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75)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76)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2월 癸酉

77)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3월 己酉

선단이 황주의 鐵和浦(鐵島)에 침입하자 황주목사 閔珣가 이들과 싸워 20명을 참살하거나 포로로 붙잡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⁷⁹⁾

서해안 지역에서 홍건적의 도발이 빈번해지자, 이방실이 지휘하는 기병으로 편성된 토벌군을 풍주로 급파하였다. 4월 3일에 풍주로 전격한 이방실 군이 공세를 취하여 30여 명을 참살하자, 홍건적은 더 이상의 도발을 포기하고 달아나 버렸다.⁸⁰⁾ 남은 적 300여 인이 압록강을 건너 달아나자, 이방실·안우 등이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4월 3일에는 홍건적의 잔당이 남아 있는 풍주로 보내 홍건적을 격파, 30여 급을 베었다.⁸¹⁾

이로써 고려의 제1차 홍건적 토벌작전은 종식되었다. 135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려 서북면 내륙 및 해안 지역 일대를 노략질하던 홍건적은 고려군의 반격에 의하여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고 고려 영토내에서 축출되었다.

이와 같이 이방실은 홍건적의 1차 침입에서 1357년(공민왕 6) 6월 16일, 홍건적의 남진을 저지할 목적으로 偏裨가 된 이후, 1359년 12월 11일 鐵州(평안도 철산)에서 안우 등과 격퇴하였고, 1360년 1월 16일에는 상장군으로서 鐵化(황해도 황주)에서 홍건적과 마주쳐 100여명을 죽였다. 1월 27일에는 安州軍民萬戶府都上萬戶가 되었다. 2월 2일에는 안우 등이 咸從(평안도 함흥)으로 진군하였으나 패하고, 이방실이 휘하 金於珍, 대장군 李珣 함께 군대의 뒤쪽에서 막아 냈다. 2월 16일에 홍건적이 甑山縣으로 달아나자 안우 등과 함께 정예 군사 1,000기를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여 延州江까지 추격하여 宣州(평안도 선천군)까지 추격하여 수백 급을 베었다. 4월 3일에는 홍건적의 잔당이 남아 있는 豐州(황해도)로 보내 홍건적을 격파, 30여 급을 베었다.

78)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3월 甲寅

79)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4월 丁巳

80)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4월 己未

81)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이방실은 1357년(공민왕 6) 6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358년 4월 3일까지 서북면 일대를 종회무진하며 흥건적 소탕에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흥건적의 1차 침입을 막은 공로로 推誠協輔功臣 樞密院副使가 되었다. 이때 공민왕은 크게 기뻐하며 諸臣과 연회를 열고, 이방실에게 玉帶와 玉纓을 下賜하였다. 이때 공주가 “어찌 至寶를 사랑하지 않고 가볍게 남에게 주십니까”라고 하자, 공민왕이 “우리 宗社가 폐허가 되지 않게 하고, 백성이 魚肉이 되지 않게 한 것은 함은 다 방실의 功이다. 내가 비록 살을 베어 주더라도 오히려 능히 보답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물건이 어찌 아까울까”라고⁸²⁾ 할 정도였다.

한편, 흥건적의 2차 침입은 1361년(공민왕 10)에 이루어졌다. 10월 20일, 흥건적의 괴수 潘誠, 沙劉, 關先生, 朱元帥 등이 20만⁸³⁾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朔州로 밀려 들어와 10월 25일에는 泥城(창성)을 점령하였다.⁸⁴⁾ 이에 고려 조정은 10월 26일에 흥건적을 방어하기 위한 지휘부를 편성하였다. 상원수 참지정사 안우, 도병마사 정당문학 김득배, 서북면 도지휘사 추밀원부사 이방실, 동북면 도지휘사 동지추밀원사 龔暉로 하여금 방어케 하였다.⁸⁵⁾

이와 동시에 고려 조정은 방어군을 안주 지경까지 전진시키는 한편으로 동지추밀원사 李餘慶을 岫嶺(자비령)으로 파견하여 목책을 설치하도록 하였다.⁸⁶⁾ 이밖에도 고려 조정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募兵을 실시하였다.⁸⁷⁾ 그리고 각지의 사찰에는 규모에

82) 『高麗史』 권39 恭愍王 9년 4월 癸未,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9년 4월

83) 『高麗史』에는 흥건적 10만이 고려에 침입했다고 되어 있다(『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0월 정유). 그러나 『高麗史』에는 죽은 자가 10만, 도망간 자 10만이라고 되어 있으며(『高麗史』 권40 恭愍王 11년 정월), 『태조실록』에도 20만으로 기록되어 있다(『太祖實錄』 권1 總書).

84)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0월 丁酉

85)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0월 丁酉, 癸卯

86)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0월 丁酉

87)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0월 壬寅

따라서 戰馬를 공출하게 하는 한편, 수도 개경까지 홍건적이 남진 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성의 문루를 수축하였다.⁸⁸⁾

홍건적은 남진을 개시하여 11월초에 撫州(영변)에 집결하였다. 이때 지숙주부사 康侶는 홍건적의 강성한 군세를 보자,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해 버렸다. 이때 서북면 도지휘사 이방실도 홍건적이 병력의 규모에 있어서 고려군보다 월등히 우세한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다. 때문에 이방실은 그 휘하 부대를 안주 지역에서 더 이상 전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에 작전지역의 주민과 군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방실은 상부의 승인하에 順州·殷州·成州 등 3개 주와 陽巖·樹德·江東·三登·祥原 등 5개 현의 모든 주민과 양곡을 절령의 木柵 안으로 이동시킨 뒤에야 비로소 그 휘하 부대들을 청천강 이북지역으로 전개시켜 홍건적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 태세에 들어갔다.⁸⁹⁾

이에 따라 11월 3일에는 이방실 휘하의 판사농사 趙天柱, 左丞 柳繼祖, 大將軍 崔準의 부대가 博州로 출격하여 홍건적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이때 예부상서 李珣도 또한 太州에서 홍건적과 싸워 적병 7명을 참살하였다. 이어서 11월 5일에 이방실 군은 지휘사 金景礪 군과 价州로 진출한 홍건적에 대한 공격작전에서 1백 50여 명을 참살하였다.⁹⁰⁾

그러나 11월 8일에 상원수 안우가 지휘하는 군도 행동을 개시하여 홍건적에 대한 공세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천주·鄭履 등이 지휘하는 기병 4백 기가 박주로 진출하여 홍건적 1백여 명을 참살하였으

88)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0월 丁酉, 『高麗史』 권81 병지 오군 恭愍王 10년 10월

89)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己酉, 『高麗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미상

90)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庚戌, 『高麗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미상

며, 이방실도 기병 1백여 기를 이끌고 延州로 나아가 홍건적 1천여 명이 집결해 있는 지역을 급습하여 그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20명을 참살하였다.⁹¹⁾

상원수 안우와 서북면 도지휘사 이방실이 지휘하는 고려 방어군은 홍건적을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안주의 방어선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은 몇 차례의 소규모 전투에서의 승리에 자만한 나머지, 홍건적의 대부대가 한꺼번에 남하하는 일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태세를 게을리하였다.

바로 이 무렵인 11월 9일에 홍건적 대부대는 일제히 청천강을 도하여 안주의 고려군 진영에 대한 기습공세를 가하였다. 고려군은 불의에 기습 공격을 받고 홍건적의 대병력과 맞서서 완강한 저항을 벌였으나, 결국 청천강 방어선을 상실하고 절령 방어선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고려 방어군 측의 상장군 李蔭과 조천주가 전사하였으며, 지휘사 김경제는 홍건적의 포로가 되었다. 고려군의 청천강 방어선 돌파에 성공한 홍건적은 포로로 잡은 김경제를 통하여 고려군측에 항복을 요구하는 통첩을 보내는 한편으로 그 병력을 총동원하여 남진할 준비를 서둘렀다.⁹²⁾

고려 방어군의 청천강 방어선이 무너지자, 고려 조정은 11월 12일에 참지정사 정세운을 서북면 軍容體察使로 임명하고, 이어서 11월 16일에 평장사 金鏞을 總兵官, 전 형부상서 柳淵을 병마사로 임명하여 방어군의 지휘체제를 보강하고, 전 밀직제학 鄭思道와 金玆를 절령으로 급파하여 방책의 수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장사 李公遂에게는 서흥 동쪽 30리의 竹田에 후방 예비병력을 집결시켜 절

91)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1월,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1월 乙卯

92)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丙辰,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1월 丙辰

령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⁹³⁾

한편, 홍건적 진영에서는 이날(11월 16일) 밤에 절령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은밀히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홍건적 1만여 명이 야음을 틈타 절령의 고려군 방책 가까이 접근하여 매복을 마치고, 새벽 닭이 울 무렵에 鐵騎 5천 기가 고려군 방어진지 정면으로 돌진하여 책문을 부수고 진내로 돌입하였다.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홍건적 1만여 명도 일제히 합성을 지르며 철기군의 뒤를 따라 고려군의 진내로 몰려 들어갔다. 고려군 진영은 전열이 마비되고, 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안우·김득배 등의 장수들은 겨우 단기로 방책에서 탈출하여 개경 방면으로 퇴각하고 말았다.⁹⁴⁾

고려 방어군이 홍건적의 공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절령 방어선이 무너지자, 홍건적은 절령 이남지역으로 남진을 계속하여 개경으로 진군하였다. 상원수 안우는 11월 18일에 절령에서 퇴각한 후 총병관 김용과 함께 흩어진 방어군 병력을 수습하여 平山 북방 20리의 金郊驛에 집결시킨 다음,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병력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홍건적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었다. 이에 김용은 左散騎常侍 崔瑩을 개경의 조정에 보내어 京兵(수도방위군)을 증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려 조정은 금교역의 방어군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고려 조정은 개경을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왕과 조정이 播遷의 길을 떠날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파천계획에 따라 고려 조정이 부녀자와 노약자를 도성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하자, 개경 성내의 민심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때 홍건적의 선봉부대가 興義驛(개경과 금천의 중간지점)까지 진출하였다.⁹⁵⁾ 이튿날

93)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己未·庚申, 『高麗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미상

94)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癸亥, 『高麗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癸亥

새벽, 공민왕과 조정 신하들이 파천길에 오르자, 김용·안우·이방실·최영 등 여러 무장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도성을 버려서는 아니됩니다!’라며, 개경을 사수할 것을 주장하였다.⁹⁶⁾ 그러나 문신들은 ‘개경의 성곽이 불완전하고 비축된 양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개경을 사수하자는 주장에 반대하였다. 이에 최영은 더욱 분함을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주상께서는 개경에 계시면서 장정을 모집하여 종묘와 사직을 지키셔야만 합니다.’라며 파천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⁹⁷⁾

결국 공민왕과 고려 조정은 결국 문신들의 개경 사수 반대 의견에 따라 11월 19일에 개경을 떠나 廣州를 거쳐 忠州로 이동하였다.⁹⁸⁾ 파천하는 도중에도 중랑장 林堅味가 각 도에서 군사를 모아 홍건적을 토벌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⁹⁹⁾

고려 조정은 한동안 충주에 머물면서 한강-광주 일대의 방어태세를 강화하여 홍건적의 한강 이남 진출을 억제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1일에는 현지 방어를 위한 지휘 부서를 정하였다. 경상도방면 도순문사 겸 병마사 柳濯, 전라도방면 도순문사 겸 병마사 李春富, 양광도방면 도순문사 겸 병마사 상서우복야 李成瑞, 교주강릉도방면 도순문사 겸 병마사 지문하성사 姜碩을 임명하였다.¹⁰⁰⁾

그러나 1360년 11월 24일에 홍건적은 개경을 점령하고 고려의 수도권 일대를 장악하였다. 홍건적은 이듬해 1월18일에 이르기까지 근 2개월 동안 개경에 머무르며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다. 홍건적 본대가

95)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1월 乙丑, 『高麗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乙丑

96) 『高麗史節要』 권39 恭愍王 10년 11월 乙丑, 『高麗史節要』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97)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98) 이에 대한 연구는 홍영의, 2004 「공민왕의 반원개혁과 안동몽진의 추이」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안동시·안동대 민속학연구소)이 참고된다.

99) 『高麗史』 권126 列傳39 姦臣 林堅味,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2월 미상

100)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2월 미상

개경과 수도권 일대를 점거하고 있는 동안, 일부는 본대와 길을 나누어 염주(연안)·안변·강화도 및 원주 일대까지 진출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군민들과 홍건적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12월 20일에는 염주에서 검교 중랑장인 金長壽가 지역 주민들을 규합하여 홍건적과 싸워 그들의 유격 기군 1백 40여 기를 전멸시켰다.¹⁰¹⁾ 12월 30일에는 목사 宋光彦이 지휘하는 원주 군민들이 홍건적 기병 3백여 기의 공격에 맞서 성을 지키다가 성의 함락과 함께 전원이 전사하였다. 안변과 강화도의 군민들은 거짓항복으로 홍건적 수십 명을 유인하여 격살하는 등의 전술을 구사하여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였다.¹⁰²⁾

한편, 1360년 12월 15일, 정세운은 福州의 行在所에서 공민왕에게 홍건적을 소탕하여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하였다. 애통교서[哀痛之教]를 내려 민심을 위로하고 또 여러 道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징발하는 것을 독려도록 요구하자, 공민왕은 “천하가 편안하면 재상에 주의가 두어지고, 천하가 위태로우면 장수에 주의가 기울여진다[天下安 注意相 天下危 注意將]”는 내용의 교서를 반포하여 민심을 위로하고, 각 도에 사자를 보내어 홍건적을 토벌할 병력을 모집하였다.¹⁰³⁾ 고려 조정은 약 20만에 달하는 병력을 확보하자,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임명하여 개경을 점령하고 있는 홍건적에 대한 반격작전을 총괄 지휘하도록 하였다.¹⁰⁴⁾

1362년 1월 17일, 총병관 정세운이 지휘하는 20만의 고려군은 개경 성내에 주둔하고 있는 홍건적을 소탕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101)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2월 丁酉

102)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2월 丁未,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2월

103)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2월 壬辰,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0년 12월 壬辰

104) 『高麗史』 권39 恭愍王 10년 12월 壬辰, 『高麗史』 권113 鄭世雲

정세운은 안우·이방실·黃裳·韓方信·李餘慶·김득배·安遇慶·李龜壽·최영 등 각군 장수들이 거느린 대군을 개경 동쪽 교외의 天壽寺(개경 보정문 밖) 앞에 집결시켜 개경성을 포위하도록 하고, 자신은 兜率院(임진강 나루 남쪽)에 진을 쳤다.¹⁰⁵⁾ 이미 개경성에 입성할 당시에 흥건적은 개경의 성곽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牛馬의 가죽을 성벽에 덮고 거기에 물을 뿌려 얼려서 고려군이 성안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성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성을 쉽사리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때마침 진눈깨비가 내리는 악천후였으므로 고려군이 攻城戰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성안의 흥건적 진영에서도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과신한 나머지 방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경 崇仁門(개경 동쪽 외성문)의 공략 임무를 분담한 이여경 부대의 호군 權僖가 “적의 정예병은 모두 이곳에 집결해 있습니다. 적의 예상을 뒤엎고 불의에 이곳을 기습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¹⁰⁶⁾ 건의하였다. 이튿날인 1월 18일 새벽에 권희가 이끄는 기병 수십명이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송인문에 기습돌격을 감행하였다. 불시에 기습을 당한 흥건적이 크게 당황하는 틈을 타서 고려군은 성벽위로 기어 올라가 흥건적의 진내로 돌입하였다. 흥건적 진영이 혼란에 빠지자, 개경성을 포위하고 있던 고려군은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다.¹⁰⁷⁾

이와 같이 송인문의 방어망을 돌파하고 고려군이 성내로 진입하자, 흥건적은 퇴로를 완전히 차단당하고 성 중앙에 설치된 방책 안으로

105)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정월 甲子

106)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정월 乙丑,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107)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정월 乙丑

들어가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려군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병 朴強이 방책에 접근하여 널판을 걸치고 방책을 뛰어넘어 들어가 홍건적 수십명을 참살하였다.¹⁰⁸⁾ 박강의 뒤를 따라 고려군 대부대가 방책 문을 파괴하고 홍건적의 진영 안으로 돌격하여 종일토록 혼전이 벌어졌다. 해질녘까지 전투를 벌여 홍건적의 괴수 沙劉와 關先生 등을 잡아 목을 베면서 승세는 완전히 고려군 측으로 기울었다.¹⁰⁹⁾ 이로부터 홍건적은 혼란에 빠져 서로 짓밟히고 깔려 넘어져, 죽은 자의 시체가 도성 바닥을 온통 뒤덮을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고려군 측에서는 홍건적이 궁지에 몰려 최후까지 저항을 계속 할 경우에는 고려군도 적지않은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하였다. 고려군의 장수들은 ‘궁지에 몰린 도적을 다 잡을 것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개경성 동쪽의 송인문과 동북쪽의 炭峴門 일대의 포위망을 풀고 홍건적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이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괴수 破頭潘을 비롯한 10여만 명의 홍건적 패잔병들은 개경성을 빠져나가 북상을 거듭하여 압록강을 건너 요동지방으로 달아나 버렸다. 고려군은 이 개경성 탈환 전투에서 홍건적을 포위 공격하여 무려 10만명에 달하는 적을 참살하고, 원나라 황제의 옥새 2개와 금보인 1개, 옥인 3개, 그리고 병기, 장비 다수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¹¹⁰⁾

이방실은 홍건적의 2차 침입에서 1361년 10월 서북면 도지휘사로 있으면서 11월 2일 서북면의 3개 주와 다섯 현의 백성들과 양곡을 절령의 목책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고, 개주·연주·박주 등에서 적과 계속해서 싸워 이들을 격파하였다. 또 조천주·유계조·최준 등을 보내어 박주에서 적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지휘사 김경제와 함께 개주

108) 權近, 『陽村先生文集』 권21 司宰少監朴強傳

109) 『高麗史』 권40 恭愍王 11년 정월 乙丑

110) 『高麗史』 권40 恭愍王 11년 정월 甲子·乙丑,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1년 정월 甲子·乙丑

에서 적을 공격하여 150여 명의 목을 베었다. 11월 19일에는 공민왕이 播遷을 결정하고 개경을 떠나려 하자, 새벽에 김용·안우 등과 말을 달려 이르러서 함께 “경성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1362년 1월 17일에는 안우·황상·한방신·이여경·김득배·안우경·이구수·최형 등과 병사 20만명을 거느리고 개경 東郊에 진을 치고, 총병관 정세운의 지휘하에 경성을 포위하고, 2월 13일 개경 탈환과 함께 흥건적의 2차 침입을 격퇴하였다. 이처럼 이방실의 군사활동은 1359년(공민왕 8)의 흥건적 1차 침입의 격퇴와 1361년(공민왕 10) 흥건적의 2차 침입 격퇴 과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삼원수’의 살해와 후대의 평가

개경 탈환 직후, 총병관 정세운이 공민왕의 측근인 김용의 음모로 안우와 이방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세운을 시기한 김용이 공민왕의 교지를 위조하여 조카인 金琳을 시켜 안우와 이방실에게 정세운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다. 김득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우·이방실이 정세운을 살해하자, 공민왕은 안우와 이방실이 정세운을 죽인 것만을 보고받고 “임금을 기만하고 主將을 함부로 살해했다”는 죄를 물어 이들을 처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우가 행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용에 의해 제거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공민왕은 대장군 吳仁澤 등을 시켜 두 사람을 잡게 하였다. 이방실은 龍宮縣에 피신해 있다가 잡혀 죽었고, 김득배는 기주(基州, 영주)에 이르러 소식을 듣고, 山陽縣(산청)에 있던 先塋 곁에 숨어 있었으나, 관에서 노모를 비롯해 형제자매를 잡아다가 참혹한 고문을 가하자, 결국 자수하여 효수되었다.¹¹¹⁾

이 사건을 계기로 권력의 중심부에 자리한 인물들이 제거되자 무장의 권력구조와 정치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정세운과 삼원수인 안우, 김득배, 이방실 이외에도 원수 閔渙과¹¹²⁾ 전공부상서 金琳이 죽음을 당했고, 許猷 등이 유배를 갔다. 민환은 충혜왕의 측근으로 일찍 제거되었다가 이 무렵 동지밀직사사로 복직되어 참전한 사람이었고, 김립은 김용의 조카로서 ‘誅奇勳二等功臣’이었던 인물이었다. 허유는 원에서 공민왕을 시종한 燕氏隨從三等功臣이었고, 김용 제거 이후에 收復京城功臣과 辛丑扈從功臣 1등으로 봉해진 인물이었다.¹¹³⁾

결국 총병관 정세운 및 삼원수의 죽음은 대규모 흥건적 침입이라는 큰 변란을 당하여 삼원수의 군사력 관장, 전공과 관련한 국왕의 의구심, 그리고 조정 중신과 최고위 장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함께 얽혀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¹¹⁴⁾ 특히 먼저 총병관이 되었던 김용과 뒤에 총병관이 된 정세운이 왕의 총애를 다투다가 김용의 간계에 말려 안우·김득배·이방실 세 장수가 정세운을 살해하고 그 결과 세 장수가 처형당한 것으로 정리되지만 그 내면에는 지휘체계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었다.

『고려사』에는 ‘삼원수’ 살해사건에 대해 공민왕의 최측근인 김용의 음모와 흥계로 벌어진 일로 서술되어 있다. 즉 김용은 평소에 정세운과 함께 왕의 총애를 다투었고,¹¹⁵⁾ 또 안우·김득배·이방실 등에게 “정세운이 평소에 경등을 시기하여 적을 격파한 뒤에는 반드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먼저 도모하지 않습니까?”라며, 거짓 왕명[矯旨]를 만들어 조카인 김립을 시켜 안우와

111) 『高麗史』 권113 列傳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112) 『高麗史』 권124 列傳37 嬖幸 閔渙

113) 『高麗史』 권105 列傳18 諸臣 許珙·許猷

114) 閔賢九 앞 논문, 42쪽 참조

115) 『高麗史』 권131 列傳44 叛逆 金鑄

이방실에게 정세운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에 안우와 이방실이 김득배의 軍幕으로 가서 “지금 정세운이 적을 겁내어 진격하지 않고 김용의 글도 이와 같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김득배가 “이제 겨우 적을 평정하였는데, 어찌 우리들끼리 서로 베어 죽이겠습니까? 옛날에 攘苴는 莊賈를 함부로 죽였으나 衛靑이 蘇建을 죽이지 않았던 일은¹¹⁶⁾ 고금의 귀감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면 잡아서 대궐로 보내어 주상의 처결을 듣는 것이 역시 옳지 않겠습니까?”라며 반대를 하였다. 안우와 이방실이 물러갔다가 밤에 다시 와서 “정세운을 죽이라고 한 것은 임금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공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왕명을 받들지 않으면 그 후환을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김득배가 굳이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그러자 안우 등이 강요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사람을 시켜 정세운을 부르게 하였다. 그가 도착하자, ‘안우 등이 壯士에게 눈짓하여 앉은 자리에서 그를 쳐 죽이게 하였다.’¹¹⁷⁾

그리고 김용의 간계를 꾸민 사실을 모르는 공민왕과 조정에서는 수습책을 강구하여 그들에게 ‘삼한을 수복한’ 공로를 내세워 宥旨를 내

116) 司馬穰苴는 齊나라 景公 때 사람인데, 비록 庶孽 출신이긴 하나 兵事에 밝았다. 당시 재상인 晏嬰의 추천으로 경공이 그를 將軍으로 삼아 燕나라와 晉나라의 군사를 막게 하였다. 그러나 양저는 자신의 신분이 미천한데다 갑자기 민간에서 발탁되어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이 복종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경공에게 寵臣으로 국가에서 높이는 자를 監軍으로 정해서 모두가 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자, 경공이 莊賈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귀족 출신으로 본래 교만한 장교는 양저와의 약속한 軍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양저가 군법에 의하여 그를 斬首하자, 대중이 그를 따랐던 고사이고, 衛靑은 漢나라 武帝 때의 명장이며, 蘇建은 그의 裨將이었다. BC 123년에 위청이 大將軍이 되어 흉노를 정벌하게 되자 소견을 右將軍으로 삼았는데, 소견이 흉노와 접전하다가 패배하고 돌아왔으므로, 위청이 그의 죄를 묻자, 좌우에서 斬首하는 여부를 가리고 의논이 분분하였지만 끝내 위청 자신이 마음대로 국경 밖에서 죽일 수 없다고 하여 돌려보내어 天子의 재량에 맡길 것이라고 한 고사임.

117) 『高麗史』 권113 열전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려 행궁으로 오도록 했다. 안우가 개신장군으로서 도착해 왕을 알현하려고 中門을 들어설 때, 김용은 그를 격살시킴으로써 자기의 음모와 흥계를 감추게 했다는 것이다. 김용은 공민왕에게 안우 등의 처사는 ‘殿下를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제거의 내락을 받았고, 이방실과 김득배도 안우와 같이 ‘불충하여 정세운을 함부로 죽였다’는 죄목으로 붙잡혀 죽음을 당했다.

즉, 이방실이 行在所에 가려고 용궁현에 이르자, 왕은 이방실의 장인인 右散騎 辛珣과 안렴사 成元揆에게 가서 맞이하게 하고, 朴椿이 도착하여 교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자, 이방실이 뜰로 내려와서 꿇어앉았다. 吳仁澤이 칼을 빼어 내리치니 바로 엎어져 기절하였다가 조금 후에 다시 깨어나서 담을 넘어 달아났다. 박춘이 쫓아가 그를 잡으려고 하니 이방실이 박춘의 칼을 뺏으려고 하였는데, 鄭之祥 등이 뒤따라와 그를 쳐서 죽였다. 김득배는 基州(풍기)에 이르러 변고를 듣고 기병 몇 명을 거느리고 도망쳐 山陽縣의 先塋 곁에 숨었는데, 그의 아우 金得齊를 花山으로 유배 보내고, 김득배의 아내와 자식을 잡아 가두고 국문하였다. 그의 사위인 直講 趙云佐이 장모에게 “바른대로 말하여 고초당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장모가 오랫동안 참다가 마침내 고백하였다. 이에 김유·박춘·정지상·성원규 등이 김득배를 체포하여 목을 벤 뒤에 尙州에서 梟首하였다.¹¹⁸⁾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정세운이 총병관에 임명되면서 중서평장사에 발탁되어 ‘二相三宰之間’에 올라 출정할 때, 그가 보인 고압적이고 오만한 언행은 상당한 거부감을 사서 안우 등에게 살해당한 직후 당시 侍中이었던 洪彦博은 그의 죽음을 ‘宜當’한 일로 받아들였다.¹¹⁹⁾ 정세운은 개경을 수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때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면서도 그 자신은 兜率院에 물러

118) 『高麗史』 권113 열전26 諸臣 安祐·金得培·李芳實

119) 『高麗史』 권113 열전26 諸臣 鄭世雲

나 주둔해있음으로써 안우로부터 ‘지금 정세운이 적을 겁내어 진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샀다. 그리고 개경을 수복한 직후 정세운이 국왕에게 전승을 보고한 露布(戰捷의 보고 내용)에는 안우 등 여러 장수들의 공로에는 침묵하면서 자기 과시의 言辭들을 많이 하였다¹²⁰⁾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 사건은 결국 국왕의 교서를 통해 이 일은 삼원수가 공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상관인 정세운을 죽임으로써 용서할 수 없는 ‘임금을 무시한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죽여 ‘법을 바로 하는 것[明正典刑]’을 보여 후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¹²¹⁾

그러나 고려 조정은 이 문제의 시비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나자, 장군 睦忠은 “여러 장수들이 정세운을 살해하였는데, 비밀로 하고 발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였고,¹²²⁾ 공민왕이 ‘삼원수’ 살해 사건 직후 최측근인 홍언박·김용·경천흥·柳濯·柳淑 등과 함께 사건처리 문제를 의논하였던 점은 이를 말해준다. 또 辛丑扈從功臣 2등이었던 金君鼎의 아우인 金文鉉은 같은 善州人으로, 이방실을 따라서 홍건적을 물리친 林永和·林寶劍 형제의 家産을 탐내어 거짓 왕명으로 ‘이방실의 무리는 모두 極刑에 처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임영화 형제를 죽이고 그 재산과 말 9匹을 모두 빼앗기까지 하였다.¹²³⁾

그러나 直翰林 鄭夢周는 삼원수의 하나인 座主 김득배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祭文을 지어 ‘비록 죄가 있더라도 공로로 덮어주어야 옳습니다. 죄가 공보다 무겁더라도 반드시 죄를 자복시킨 뒤에 처형해야 옳습니다. 어찌하여 전쟁터에서 흘린 땀[汗馬]이 마르지 않았고 개선하

120) 『高麗史』 권113 열전26 諸臣 鄭世雲

121) 『高麗史』 권40 恭愍王 11年 3월 丁未

122) 『高麗史』 권27 恭愍王 11년 1월

123) 『高麗史』 권131 열전44 叛逆 金文鉉

는 노래도 그치지 않았는데, 마침내 태산 같은 공로를 도리어 칼날의 피가 되게 하였습니까? 이것이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게 묻는 것입니다'라며 우선 죄를 밝히고 죽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여 異論을 제기하기도 했다.¹²⁴⁾

이 일의 처리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柳淑은 '처음에 안우 등이 정세운을 죽이고, "이미 총병관은 죽였지만 유숙이 중앙에 있으면서 매양 기묘한 계책을 잘 내니 두려운 존재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공민왕에게 "여러 사람의 노여움을 범하기란 어려운 것인데 이제 여러 장수들이 신을 꺼려하는 것은 다만 신이 전하의 좌우에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물러나기를 청하자, 東京留守로 외방에 나갔다가 곧 삼원수 살해사건이 마무리된 후 3월에 知都僉議로 소환하였다.¹²⁵⁾

또 흥왕사의 난 직후 廉悌臣이 새로이 政丞에 임명되었을 때 宰樞가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김용이 그에게 "세 가지 근심거리가 없어졌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소이까?"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흥언박이 죽은 것이 첫 번째 근심거리가 없어진 것이요, 역적의 무리가 다 죽은 것이 두 번째 근심거리가 없어진 것이요, 이로부터 백성들이 근심을 없었으니 세 번째 근심거리가 없어진 것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흥언박·정세운과 세 元帥"라고 할 정도였다는¹²⁶⁾ 것이다.

그러나 李穡은 '罪三元帥教書'를 작성할 때, 안우 등이 공을 세웠다고 으스스대면서 교만 방자하게 굴더니, 결국 정세운에게 감정을 품고는 大法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한때의 私的인 분노를 풀기 위해 아래에 있는 자가 감히 제멋대로 죽인 것이며, 임금을 무시하고 업신여

124) 『高麗史』 권113 열전26 諸臣 安祐, 권117 열전30 鄭夢周

125) 李穡 『牧隱文藁』 권18 碑銘, 『동문선』 권127 墓誌 有元高麗國忠勤節義贊化功臣 重大匡瑞 寧君諡文僖柳公墓誌銘

126) 『高麗史』 권131 열전44 叛逆 金鏞

기면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없는 것으로 정세운보다는 삼원수에게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¹²⁷⁾ 특히 이인임이 정세운의 초상화를 그려 완성하자, “세 명의 원수가 총병의 공이 자기들보다 위인 것을 시기한 나머지 부하 군사를 使嗾하여 불시에 습격해서 살해하게 하였고, 그 뒤에 세 명의 원수가 伏誅되기는 하였지만, 세상에서 鄭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찬을 지어 ‘적들을 또 섬멸하였건만(亦旣殲之)/부하가 그만 해치고 말았는데(而下害而)/해친 자들 역시 모두 망했나니(害而俱亡)/어찌 그리도 생각을 못 했던가(嗚呼不思)/라며 삼원수를 비난하고 정세운을 현종 때 姜邯贊과 같은 인물로 비유하고 있다.¹²⁸⁾

이색의 교서는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鄭道傳, 南閻, 沈孝生 등이 定安大君(태종)에게 피살당할 때 교서를 작성한 盧石柱와 李文和의 대화에서도 ‘誅三元帥教書’의 뜻을 모방하여 지으면 된다고 하며, “적을 부순 공로는 한 때에 혹 있을 수 있지만, 임금을 무시한 마음은 萬世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文詞이다”라고¹²⁹⁾ 할 정도로 정도전 제거의 명분을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尹紹宗은 이인임 자신이 ‘三傑’의 공을 겹했다고 한 것을 비판하면서 ‘병신(1356) · 기해(1359) · 신축(1361) · 계묘년(1363)의 난 세에, 조정의 지휘는 곧 홍언박과 諸公이 맡았고, 전선에서의 방어는 李承慶 · 안우 · 이방실 · 김득배 · 최영 등 여러 장군과 재상들이 있었으니, 그 혁혁한 명성을 온 백성이 보고 들은 바라’고 하였다.¹³⁰⁾

윤소종의 이러한 삼원수의 공로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세운은 빠져 있다. 이색과 윤소종의 이러한 차이가 정세운과 삼원수를 바

127) 李穡 『牧隱文藁』 권11 事大表牋 罪三元帥教書

128) 李穡 『牧隱文藁』 권12 讚 贈 贈侍中鄭公畫像讚 并序詩

129)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 8월 26일 己巳

130) 『高麗史』 권126 열전39 姦臣 李仁任

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공양왕 대 房士良에 의해 안우·이방실·김득배·박상충 등과 같은 인물들은 관품을 올려주고 포상하며 증직을 내리고, 특별히 小牢의 제사를 하사하여 그 곧은 魂을 위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¹⁾

문종 때 편찬한 『東國通鑑』에는 “애석하게도 싸움에 이겼다는 소식이 겨우 전달되었는데, 총병관이 역적 김용의 도모한 바가 되었으며, 삼원수가 서로 연달아 해침을 당하였으므로, 온 나라의 사람마다 모두 김용의 살점을 씹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으니, 왕은 어찌하여 살피지 않고서 명목이 없는 죄를 공이 있는 사람에게 더하여 죽임으로써 공에다 보답한다는 말입니까? 文忠公 정몽주는 제문을 지어 애도하기를, ‘泰山과 같은 功으로 하여금 도리어 칼날의 피가 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대개 일찍이 공민왕의 처사에 대하여 몹시 한탄하지 않음이 없었다 합니다.”라고¹³²⁾ 하여 김용의 음모와 정몽주의 제문을 빌어 공민왕의 ‘명목이 없는 죄를 공이 있는 사람에게 더하여 죽인’ 처사를 지적하고 있다.

1407년 영의정 成石璘이 上書에 의하면, 일찍이 前朝 때에 싸움을 잘하기로 이름난 사람을 보면, 안우·이방실 같은 이는 모두 梯己·心腹·手足과 같은 사람이 있어, 위태한 때에 臨하고 勝負를 결단할 즈음에 당하여서는 모두 그들의 힘을 입었습니다. 마땅히 將相으로 하여금 미리 子弟와 親族 및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재주와 힘이 있는 자 각각 몇 사람씩을 뽑아서 급한 때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하소서.”¹³³⁾라고 하여 안우·이방실을 전투를 잘하는 자[善戰者]로

131) 『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3월

132) 『東國通鑑』 권47 高麗紀 공민왕 11년 1월 史臣按

133) 『太宗實錄』 권13 태종 7년 1월 19일 甲戌 “嘗觀前朝號爲善戰者如安祐李方實 皆有梯己心腹手足之人 當其臨危決勝之際 皆賴其力 宜令將相 預選子弟族親及所知 有才力者各幾人 以備緩急之用”

지목되고 있다.

1452년(단종 즉위)에는 고려의 공신·충신·명장 등을 왕씨의 제사와 함께 제사하도록 할 때, 의정부가 예조의 公文에 의거하여, “中書平章政事 안우·政堂文學 김득배·樞密院副使 이방실 등은 홍건적 4만 명이 서경을 함락했을 때 안우·김득배·이방실이 분연히 이를 공격하여 크게 격파시키니, 적의 戰死者가 서로 머리를 이었고 겨우 3백 명만이 압록강을 건너 逃走하였으며, 뒷날 홍건적 20만 명이 개성을 함락하였을 때는 안우·김득배·이방실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개성을 포위하여 크게 격파시켰는데, 10여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무리는 강을 건너 도주하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편안한 寢食을 하게 된 것은 세 元帥의 공이다.’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정세운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¹³⁴⁾

그러나 성종과 연산군 때 정치 활동한 成侃(1439~1504)은 정세운을 애도하며, 하루아침에 세 공신을 죽인 공민왕의 어리석음과 남의 공로나 능력을 시기한 김용을 우선 지적하고, 김용의 계책을 깨닫지 못하고 정세운을 죽이고도 의심하지 않은 삼원수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전횡하는 신하가 되고[請之則爲 專制之臣]/따르면 일망타진 죽임을 당할 게 뻔했어라[從之則爲一網之肉]/아아 이분들은 이러한 진퇴유곡에 빠졌어라[[嗟哉諸君罹此惟谷]/총병을 죽이고도 의심하지 않았으니[殺總兵而莫之疑兮]/진실로 反爾의 도라 하겠도다[固反爾之道也]”라고 하여, 그들의 선택도 어쩔 도리가 없었음을 말하였다.¹³⁵⁾ 또 1518년(중종 13)에는 成均館直講 林霽光이 홍건적을 탕평하여 功烈이 세상을 뒤덮은 안우·이방실·김득배 같은 세 원수도 아직까지 사당이 없으니, 각각 공을 세우고 절의를 위해 죽은 곳에 사당을 세워 세상 사람이 觀感하고

134) 『端宗實錄』 권4 단종 즉위년 12월 13일 辛丑

135) 成侃 『慵齋叢話』 慵齋外集 賦 권3 弔三元帥

敬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³⁶⁾

효종과 현종 때 활약한 俞榮(1607~1664)는 “내가 살펴보건대[按], 김용의 계획이 본래 매우 간악하고 비밀스러웠다. 그러나 내 소견으로는 공민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期必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여 공민왕이 심복인 김용을 시켜 일을 꾸민 것으로 보았다.¹³⁷⁾

李瀾(1681~1763)은 “紅頭의 난리에 세 장수[三帥]가 원통하게 죽은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억울하게 생각하나, 나는 그때 세 장수도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용의 간사한 뜻을 따라 정세운을 죽인 것은 “그에게 의지하여 마음먹었던 일을 모두 행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죄는 컸던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오직 그들의 마음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까닭에 물욕이 본심을 가려서 참다운 이치를 볼 수 없었다. 이 러므로 이들 세 사람이 김용의 꾀에 빠지게 되고 제 자신도 또한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했다.¹³⁸⁾ 그 예로 김득배의 「金海郡詩」의 내용을 소개하고 ‘대개 공명으로써 자랑스럽게 여 기던 자’로 보았다.¹³⁹⁾ 이익의 문인인 尹愾(1741~1826)는 삼원 수를 한고조 때 韓信과 彭越, 岳飛와 비교하여¹⁴⁰⁾ ‘예로부터 공을

136) 『中宗實錄』 권34 중종 13년 10월 1일 丁卯

137) 俞榮 『麗史提綱』 권20

138) 李瀾 『星湖僿說』 권20 經史門 三帥冤

139) 李瀾 『星湖僿說』 권20 經史門 三帥冤 金海郡詩 ‘분성을 관장한 지 스무 해가 넘었으매(來管益城二十春)/그 당시 부로들 반은 티끌이 되었구나(當時父老半爲塵)/서기에서 차츰 지나 원수까지 되었으니(自從書記爲元帥)/세상에 나 같은 사람 얼마 되지 않으리(屈指如余有幾人)

140) 韓信(?~BC196)은 劉邦에 의해 楚王으로 봉해졌다가 BC 196년 측근이 呂后와 태자를 해하려 하다고 고발하자, 蕭何가 계략을 세워 未央宮으로 오게 한 후 시해하고 3족을 멸했다. 彭越은 楚漢 전쟁 때 병사 3만여 명을 이끌고 한나라에 귀순하여 劉邦을 도왔다. 項羽를 격멸하고 梁王에 봉해졌다. 梁나라 장수 扈輒이 반란을 권유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梁太僕이 고발하자 고조가 사람을 보내 체포하고, 庶人으로 강등시키고, 蜀으로 옮겨졌다가 呂后의 말을 들은 고조가 三族을 멸했다. 岳飛는 南宋의 名將으로, 등에 ‘精忠報國’ 네 글자를 새기고 金나라를 쳐서 증원을 회복하려는 主戰派였으나, 간악한 재상 秦檜가 금과의 강화를 주장하며 악비를 모함해 옥사시켰다.

이론 뒤에는 도록되었다'고 하였다.¹⁴¹⁾

결국 총병관 정세운 및 삼원수의 죽음은 대규모 흥건적 침입이라는 큰 변란을 당하여 삼원수의 군사력 관장, 전공과 관련한 국왕의 의구심, 그리고 조정 중신과 최고위 장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함께 얽혀 발생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정세운과 삼원수의 죽음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대체로 정세운과 '삼원수'를 나누어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공민왕과 김용의 공모에 희생된 삼원수의 억울함을 지적하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장수로서 그것이 비록 그릇된 명령이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인정하는 한편, 罪보다는 功이 더 컸음을 인정하는 쪽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나가면서

이방실은 1337년(충숙왕 복6)에 通德郎으로 福州司錄에 임명되었다가 1344년 충목왕이 세자로 8살에 원나라에 들어갈 때 侍從한 공로로 1345년 中郎將, 護軍을 거쳐 諫官, 1354년 大護軍을 거쳐 원의 요청에 따라 高郵城 전투에 참여하였다.

1357년(공민왕 6) 6월 16일, 흥건적의 남진을 저지할 목적으로 偏裨가 된 이후, 1359년 12월 11일 철주에서 안우 등과 격퇴하였고, 1360년 1월 16일에는 上將軍으로서 철화 전투를 치루고 1360년에는 安州軍民萬戶府都上萬戶가 되었다. 함종 전투 등 몇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흥건적의 잔당이 남아 있는 풍주(에서 승리를 거둔 1357년(공민왕 6) 6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358년 4월 3일까지 서북면 일대를 종회무진하며 흥건적 소탕에 소임을 다했다. 이 공로로 공민왕으로 부터 玉帶와 玉纓을 下賜받으며, “우리 宗社가 폐허가 되지 않게

141) 尹愾 『無名子集』 詩稿 6책 詩 詠東史 其五百六十五, 其五百六十六

하고, 백성이 魚肉이 되지 않게 한 것은 함은 다 방실의 功이다. 내가 비록 살을 베어 주더라도 오히려 능히 보답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물건이 어찌 아까울까”라고 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장수였다. 이때 推誠協輔功臣 樞密院副使가 되었다.

1361년 추밀원부사를 거쳐 서북면도지휘사가 되어 흥건적의 2차 침입에 대비하였고, 곧 중서평장정사가 되었다. 元帥로서 흥건적의 격퇴와 개경탈환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개경 탈환 직후, 총병관 정세운이 공민왕의 측근인 김용의 음모로 안우와 이방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죽임을 당하였다. 물론 誣告에 의한 이 ‘삼원수 살해 사건’은 1391년(공양왕 3) 방사량의 요청에 의해 복권이 되었지만, 이후 조선시대 사가들에 의해 ‘공민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期必하기도 어렵다’는 평을 남기게 된다.

결국 총병관 정세운 및 삼원수의 죽음은 대규모 흥건적 침입이라는 큰 변란을 당하여 삼원수의 군사력 관장, 전공과 관련한 국왕의 의구심, 그리고 조정 중신과 최고위 장수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함께 얽혀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특히 먼저 총병관이 되었던 김용과 뒤에 총병관이 된 정세운이 왕의 총애를 다투다가 김용의 간계에 말려 안우·김득배·이방실 세 장수가 정세운을 살해하고 그 결과 세 장수가 처형당한 것으로 정리되지만 그 내면에는 지휘체계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었다.

김용에 의해 주도된 이 ‘삼원수’ 살해사건과 ‘홍왕사의 난’의 결과는 반원개혁을 주도하며, 공민왕의 국왕권을 지탱해주던 국왕 측근세력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제거 소멸됨으로써 왕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즉 2차 흥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정세운과 안우·김득배·이방실 등이 홍왕사의 난의 주모자인 김용의 음모에 의하여 살해된 데 이어 왕의 외척으로 최대 후원자였던 홍언박마저 살해됨으로써 측근세력이 와해된 반면,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

던 최영 등 무장세력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공민왕의 왕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군사들을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던 장수들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교서에 “천하가 평안할 때에는 재상에 주목하고, 천하가 위태로울 때에는 장사에 주목한다”는 말을 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말해 준다. 이 무렵에 최영이 최고의 실권자로 대두하고, 이성계, 임견미, 우선 등이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서 왕은 측근에 있는 환관이나 간신을 보다 미덥게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특히 공민왕의 세력기반이 붕괴되고 새로이 무장세력이 대두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왕권을 불안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공민왕은 묵과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戰後수습책과 제3차 개혁정치를 시도하였고, 그것은 공민왕 14년 신돈이 등용으로 개막되는 것이다. 신돈의 등용은 국왕권이 약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된 것이었다. 신돈은 정권을 잡은 후 곧 최영을 비롯한 주요 무장세력들을 제거하고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공민왕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주요 측근이 제거되고 외적 퇴치와 내란 수습 과정에서 신흥 무장들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왕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민왕은 아무런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던[離世獨立之] 신돈을 등용하여 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계변화를 이루려 하였다.

[원고투고일: 2017.2.14, 심사수정일: 2017.5.11,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삼원수(三元帥), 이방실(李芳實), 김득배(金得培), 안우(安祐), 정세운(鄭世雲), 김옹(金鏞), 공민왕(恭愍王), 홍건적(紅巾賊)

<ABSTRACT>

General Lee Bang-sil's life and his Military activities

Hong, Young-Eui

Born in 1298, Lee Bang-Sil is Hamahn Lee Clan's Middle founder. In 1337, he was appointed to the Fuzhou Sarok(福州司錄) as the Tongdeok-rang(通德郎), and in 1344, when the prince, who became King Chung-mog later, entered Yuan Dynasty at the age of eight, he escorted the prince, was recognized for his service, and was appointed Gangwan(諫官) after undergoing Chungranggun(中郎將), Hogun(護軍). In 1354, he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Gowoosung(高郵城) at the request of Yuan Dynasty as the Great Hogun(大護軍)

On June 16, 1357, when the Red Turban(紅巾賊) invaded, Lee Bang-Sil was appointed to the pyunbee(扁裨), after that defeated the Red Turban by fighting with Ahn Woo(安祐) in Cheolju(鐵州) On December 11, 1359, and won over Cheolhwa(鐵和) battle as the Above General(上將軍) in January 16, 1360. After that he was promoted to the Ahnjoo(安州) Above Manho(上萬戶) in 1360.

He won the battle several times, including battle of Hamjong(咸從), and swept away the remnants of the Red Turban who had stayed in Pungju(豐州), and he was awarded for his merits and went up to the Choosung hyeubbo meritorious retainer(推誠協輔功臣) Royal Secretariat(Chumilweon) Boosa(副使). He became the seebukmyundo commander(西北面都指揮使) in 1361, preparing for the second invasion of the Red Turban, and then was appointed to the joongseo(中書) pyungjangjeongsa(平章政事).

As a marshal, he led the repulsion of the Red Turban and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capture of Gaegeong(開京). However, he made a mistake to remove Jung Se-un(鄭世雲) who made a contribution to recapture Gaegeong in the conspiracy of Kim Yong(金鏞), an aide of King Gongmin(恭愍王). After that, Lee Bang-Sil was also killed with Ahnwoo, Kim Deuk-bae in the plot of Kim Yong. In 1391, the three marshal murder case by the

declaration became a lottery by the request of Bang Sa-rang(房士良). However, historians of the Joseon Dynasty also made it clear that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it was not what King Gongmin ordered.

In the end, it is thought that the death of Lee Bang-sil, and others, were an event that was revealed, due to the head of the military power of the three marshal, the king's doubt concerning the major, and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senior statesman and the highest rank general at the time of a big change in the invasion of the Red Turban. There was also a problem inside the command system.

Keywords : three Marshal, Lee Bang-sil, Kim Deuk-bae, Ahn Woo, Jung Se-un, Kim yong, King Gongmin, Red Turban invasions

